

## 물음으로서의 사진 vs 방법으로서의 사진

정현(미술비평, 인하대학교)

양승원은 기울어지지 않는 산업화로 비롯된 건물, 도시, 풍경을 주목한다. 그가 바라본 세상은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온갖 아름다운 말의 성찬과 달리 점점 더 거대해지고, 다양하다는 주장과는 달리 유형학적으로 서로 닮아갔다. 산골마을에 살던 작가가 서울에 도착해 처음 본 장면들은 거대한 건물과 아파트 단지였다. 가족, 가정, 집이 표상하는 의미는 점점 더 크게 다가왔고, 자연스럽게 아파트를 찍는 작업을 착수했다. 문제는 가족, 가정, 집이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따뜻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그런데 멀리서 아파트 거실 하나하나를 촬영하여 이를 편집하여 레고블록을 쌓듯 차갑고 어두운 아파트 콜라주가 완성된다. 사진에서 느껴지는 무거움, 서늘함은 작가가 느낀 감정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작가가 대도시의 아파트에서 가족의 따스함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가족은 늘 화목하고 가정은 언제나 행복해야 하는 것일까? 그런 가정이 존재할 수 있을까?

양승원은 아파트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인간관계인 정동(affect)을 배제하고 오로지 바깥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외부만을 사진에 담는다. 마치 발터 벤야민이 근대도시를 안과 밖의 단절로 본 것처럼 말이다. 그는 안과 밖이 변증법적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간지대를 찾았고, 그곳이 바로 아케이드였다. 그곳은 안도 밖도 아니며 동시에 둘을 모두 만족시키는 장소였다.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양승원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과거와 현재의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었을까? 설치작업 <Act 3, Scene 2, Nes, 2015>는 동명의 연작이 주로 도시 개발 현장과 그 안에 남겨진 공공 주거건물을 한 프레임에 보여준 것과 달리 사진 이미지를 일종의 데이터로 변환하여 익명성을 넘어서 일종의 추상화(abstraction)를 시도한 작업이다. 루이즈 부르주아도 의인화된 건물을 자주 드로잉과 조각으로 다룬 적이 있었다. 그녀에게 집은 모성이자 여성의 신체였다. 대신 건물에 다리를 붙여 어디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여성과 역동적인 모성을 그렸다. 반면 양승원의 색면 건물은 일률적으로 서로를 마주 보고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익명이 된 건물-신체는 개인성을 지운 하드에지 회화처럼 자신만을 지시하는 듯하다.

현대사진은 초기 사진과는 전혀 다른 매체가 되었다. 사진이 현실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매체적 속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하지만 미술로서의 사진은 현실에 개입하여 오히려 허구성을 강조한다. 전시 <Hide and Seek>(2017)에서 양승원은 공간의 내부로 시선을 옮긴다.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사진 속 실내는 연출된 세트와 레플리카 들이다. 이번 작업은 <오마주 연작>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 양승원이 베허 부부의 유형학적 사진을 참조하여 토목 건축물을 촬영한 작업으로, 베허 부부가 주로 초기 산업화 시대에 세워진 기계적 특성이 고스란히 담긴 건축물의 구조를 강조한 것을 그대로 차용했다. 베허 부부는 감정이나 서사를 완전히 배제한 상품의 카달로그 사진을 연상시킨다. 그들은 카메라를 마치 수술실이나 과학 실험실의 도구처럼 사용했기에 건물들은 해부학의 대상처럼 느껴진다. 이번 전시에서 양승원은 이전 작업들에서 시도했거나 실험한 사진술의 요소들을 작가의 의도를 정밀하게 제시하는 장치로 조금씩 활용하고 있는 듯하다. "RGB Nature"는 시내 한복판에 만들어진 인공동굴이다. 작가는 현실이 얼마나 허구와 혼합되어 있는지를 질문한다. "해시태그", "물개성화" 등은 세트를 제작하여 촬영한 작업으로 사진의 허구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각이란 감각으로 형성된 공통의 정보와 지식을 해체하려는 시도는 현대사진이 허구를 통해 사진의 한계로부터 그 가능성을 탐색하

는 실천일 터이다. 현대, 그의 사진에서 다른 작가들의 영향을 쉽게 알아차리게 되는 점은 여전히 아쉽다. 그의 전시가 흥미로운 숨바꼭질이 되려면 아무래도 관객이 열정적인 술래가 되어 도무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숨은 아이를 찾아내는 것일 텐데, 게임이 조금은 싱겁게 끝나버려 조금은 허탈하다. 이미 현실과 허구 사이의 게임은 포토몽타주에 의한 초현실주의적 상상의 드로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의 몽타주를 통해 허구가 어떻게 현실을 압도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사진이 별이고 있는 이러한 숨바꼭질은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현대사진이라는 개념이 구체화되면서 조형사진 또는 사진예술이라 불리는 유형의 사진들은 어느 정도 표준화 과정을 거친 듯하다. 그것이 정확하게 사진 이미지의 유사성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대상을 보는 관점과 그것을 재현하는, 그러니까 보여주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준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사진은 세계를 관찰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적인 세계를 만들거나 세계를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허구성을 부풀린다. 다시 말해, 다소 거칠게 표현하자면 오늘날 조형사진은 이미지를 통하여 현실이란 상(象) 너머의 실재를 끊임없이 건드린다. 과연 누가 실재를 보여줬는가는 큰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어떤 사진이 실재를 감각하게 만들었는가가 의미를 산출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사진이 가지고 있던 중량감과 역할은 훨씬 가벼워졌으나 그렇다고 사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존재론적 신비가 사라진 건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신비는 더욱 과장되어 일상 자체가 이미지의 혼돈에 빠져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이미지는 현실을 이미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가 곧 현실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들뢰즈는 이러한 현상을 '불면의 밤'이라 불렀다. "밤이다. 그러니 이제 그는 꿈을 꿀 것이다. 그가 잠들었다고 믿어야 할까?"<sup>1)</sup> 여기서 불면의 밤이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잠들었지만 잠들 수 없는 상태, 이미지-꿈을 꾸지만 현실이 될 수 없는 상태를 말이다. 그런데 이 상태들은 모두 베케트의 작업에 관한 해석이다. 베케트는 현실의 부조리함을 언어의 낭비로, 의미를 알 수 없는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몸짓으로 제시했다. 언어는 느슨해져 배경 정도로 흐릿해지고 몸짓은 피로할 뿐 결코 죽지 않고 계속 그 반복을 반복한다. 어쩌면 디지털 미디어 사회란 반복의 반복하며 소진될 뿐 마침표가 없는 세상일지도 모르겠다.

세상은 점점 더 서로 닮아가고 서로를 참조하고 모방한다. 그런데 모방물이 현실보다 더 주목받는 일이 일어난다. 자아를 견고하게 세워 주체적 삶을 산다는 게 때론 부질없는 주문처럼 들리기도 한다. 현대사진의 실험은 단순한 이미지의 유희가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의 밑바탕을 건드린다. 그래서 결국 사진도 철학적 질문에서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자문해 본다. 양승원은 사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작가이다. 철학자 디디-위베르만(Didi-Huberman)은 세상에 남겨진 이미지들 속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는가를 질문하라고 말한다. 바로 남겨진 것들을 둘러싼 온갖 해석과 주장에서 해방되라고 말한다. 어쩌면 우리는 예술이 (아름답고도 아름다운) 삶의 목적이 아닌 예술 세계라는 게임의 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목표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보아야 한다. 나는 양승원 작가에게 남겨진 이미지들에서 벗어나 이제 자신의 역사를 써보길 권하고 싶다. 이미 출발했으니 말이다.

---

1) 질 들뢰즈, 『소진된 인간-베케트의 텔레비전 단편극에 대한 철학적 에세이』, 문학과 지성사, 2013, 70쪽